

한국소설에 비친 의사의 모습

조남현*

I. 서론

소설에는 의사소설(Arztroman)이란 유형이 있다. 의사소설이 되려면 의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간에 의사를 주요인물로 내세운 소설은 우리소설에서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의사소설을 제대로 쓰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하거나 의사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문인지 20세기 한국에서는 의사소설의 범주에 넣을 만한 작품들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가 주요인물로 설정되었거나 주요인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설정되었거나 한 경우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런 소설, 의사의 갈등하는 모습을 그런 소설, 의사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런 소설로 3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II. 의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린 소설

羅稻香의 「J의사의 고백」(『조선문단』, 1925.3-4)은 미완성작이기는 하지만 자만심에 빠진 젊은 의사가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사로운 성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제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 본과 교수

이 작품은 고백체 형식을 지니고 있다. J의사가 자기와 간통한 S의 남편에게 “나를 무서웁게 하며 나의 내면의 잡채한 모든 힘을 위압하고 강제할 만한 무슨 위대한 힘이 또다시 우리 인생사회에 열기설키하야 있서”¹⁾와 같이 나와 S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것으로 소설을 열고 있다. J의사는 이 소설의 중심사건을 이루는 자신과 O간호원의 관계파탄, 자신과 S의 간통 등이 자신이 20대 초반에 의사가 된데서 빚어진 자만심이 최초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희가 어린테다가 남에게서 별로히 볼수없는 자격 즉 의사면허장을 가진 것이 그때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였는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적지 않은 죄악을 짓게 되었으며 또는 나의계는 남달리 사람의 마음을 잡아 다니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적지안은 원한을 품게 한 녀성이 세상에 멋친지 알수가 업습니다.

더구나 모두가 그러타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업는 일이지만은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인류의 우환질고를 위하여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못되고 첫째 의술을 파라서 땅이나 눈을 작만하라는 사람이 만흔 것은 의사가 돈을 만히 번다고 하는것보다 그만큼 사회상 대우가 잇스며 또는 그마큼 제한이 업는 직업인 까닭이라 하겠지요.

내가 처음으로 개업을 하얏을 적입니다.²⁾

J의사는 의사는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구해주는 사명감에 충실했던 경우와 의술로 돈을 많이 벌려는 경우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미 1920년대에 의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O라는 간호부는 J가 의학교 다닐 때 만나 첫 사랑을 나눈 여자였으나 질투심이 강하여 J옆에 어떤 여자라도 가까이 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J가 자기 형의 소개로 온 미인을 내쫓아 버린 O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이 원인적 사건이 되고 있다. 이 복수심은 의자를 가져 오라는 명령을 어긴 O간호부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S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출된다. “O의 시괴는 날로 하야금 반동적으로 S를 통락할 마음이 생기게 하얏습니다”라든가 “그러자 나는 S라는 녀자를 엊더케 해서든지 손가운데다가 집어 너어서 간호부를 내눈앞에서 내가 보는

1) 『조선문단』, 1925.3, 2면

2) 위의 책, 3면

데서 그대로 말리 죽이어 버리고 십흔 생각이 낫습니다"와 같이 J의사는 고백하고 있다.

이 소설은 입원한지 열흘 째 되는 S를 J가 밤중에 산보 가자고 유혹해서 열두시 넘어 카페에 가서 독주를 먹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S의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이 작품의 맨 앞부분을 보면 J의사는 본분을 망각해 버린 채 성욕을 채운 것으로 짐작된다.

崔曙海의 「朴戛의 죽임」(『조선문단』, 1925.5)에서 한의사 김초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한 고등어 대가리를 배가 고파 주워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박돌을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진찰도 한 번 해 주지 않고 약 한 척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박돌 어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초시한테 매어 달려 갖가지 약속을 하였으나 김초시는 박돌네의 평소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인술을 행사하는 것마저 거절한 것이다. 식중독을 일으킨 후 약 한 척 먹지 못하고 아들이 죽자 박돌 어미는 오랫 동안 꾹꾹 눌러 왔던 한과 설움이 일시에 폭발하게 된다. 이 소설은 박돌어미가 김초시 집에 쳐들어가 그를 깔고 앓아 머리며 몸을 닦치는 대로 난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물론 이 소설에서 한의사 김초시의 변명을 들어 볼 기회는 없었다. 최서해는 경향작가였던 만큼 박돌어미와 같은 환자가족 편을 들고 있다.

돈이 없어 의사로부터 진료를 거절 당하는 장면은 「饑餓와 殺戮」(『조선문단』, 1925.6)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경수는 나무꾼으로 하루 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집세 독촉에 시달리고 풍에 걸려 누워있는 아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에 빠지게 된다. 경수는 식구들이 냉방에서 자고 부황 뜯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가진 자와 기성체제에 대한 불만감을 키워 간다. 醫債 오십원을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머슴을 일 년 동안 살아 준다는 약속을 하고 다섯 차례나 통사정한 끝에 겨우 최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었으나 약국주인으로부터는 거절 당하게 된다. 어머니는 중국집 개에게 물려 업혀 오고, 세 살 난 딸 학실이는 젖 달라 보채고, 마침내 경수는 머리가 땅해 오고 사지가 뒤틀리고 오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한 느낌으로 빠져든다. 경수

는 어머니, 아내, 딸 모두가 악마들의 칼에 난자당하는 듯한 착란상태에 빠져 들게 된다. 이 작품에서 의사와 약국주인의 비정한 태도는 주인공을 빠르게 극한상황으로 몰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인공 경수에게 의사의 부자나 지배자를 대변하는 존재로 비치게 된 것이다.

姜敬愛의 「어둠」(『여성』, 1937.1-2)은 한 간호원이 主義者로 활동하다가 불잡혀 사형당한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를 유린한 일본인 의사에 대한 중오심과 뒤섞은 나머지 정신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 것이다. 간호원 영실은 오빠가 사형당한 사진을 신문에서 보고나서부터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일본인 의사에 대한 배신감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영실이는 이미 '기미년 토벌난에 아버지를 잃어' 오빠를 정신적 지주로 받드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마침내 영실은 일본인 의사사를 해치기 위해 덤벼든다. 영실은 일본인은 자기의 정조를 빼앗았고, 아버지를 앗아갔고, 오빠를 죽여 마침내 자기 집안을 뿌리채 뽑아 버린 존재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그러나 일본인 의사사는 처음부터 탐욕스럽고 잔인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병원에 부임해 오던 초기에는 무료 환자를 더욱 정성껏 보아 주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탐욕스러워지고 비정해진 것이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만심이 의사로서의 자부심에 불을 지른 결과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전 소설에서 일본인 의사가 조선인 간호원을 농락한다는 사건을 설정한 것은 찾기 어렵다.

韓雪野의 「술집」(『문장』, 1939.7)은 병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점에서 의사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설가 한민의 둘째 아들이 배가 계속 아픈 것을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된다. 십여 군데 병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수술하라든가 대꾸가 없든가 할 뿐이었다. 한민은 할 수 없어 문제의 그 병원으로 가기로 하였다. 문제의 그 의사사는 일원 한 장이면 고칠 수 있는 감기환자에게도 지프테리아에 걸렸다고 하면서 15원 쯤 있어야 완치된다고 하는 식으로 돈을 밟혔다. 게다가 색마로 소문이 난 의사였다. 이번에는 도립병원으로 가 보았다. 박사인 외과의사는 "한참 만에 나와서 반뒤질을 지고 마뜩지 않은 눈매로 기준이 놈을 내려다 보더니만 역시 내키지 않는 손으로 가슴과 배를 두루두루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한다”³⁾ 의사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채 통명스럽게 입원을 권한다. 여기에다 박사의 조수인 듯한 젊은 의사가 오더니 반말로 대변을 받아 오라고 한다. 이 소설은 시장판같은 병실의 분위기를 그려내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준이 놈은 낮에 의사들이 있을 때는 별탈이 없다가도 밤만 되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른다. “숙직 선생이 있대야 과가 다르고 그렇다고 외과 선생을 불러 달랬자, 환자가 거이 죽기 전에는 불러 줄 배 만무하다”⁴⁾는 구절 속에는 당시 의사들에 대한 공포심과 불신감이 깔려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한민이 아내와 아들을 병실에 둔 채 병원을 나와 어느 카페에 들어 가 술, 노래, 웃음소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건강을 실감하는 것으로 끝이 나있다. 그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향해 “에, 못생긴 놈, 병에 지다니 병에---”하고 중얼 거린다.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고압적이고 배금주의적인 태도는 작가 한설야에게 깊은 상처가 된 듯하다. 부정적인 의사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서술은 이 작품에서 끝나지 않는다.

韓雪野의 「태양은 병들다」(『조광』, 1940.1-2)는 당시 의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또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요리집 화원장에서 주방일을 하는 명우는 솜씨가 좋아 일본인이 경영하는 요리집에 더 좋은 대우를 약속받고 가기로 한다. 최초의 원인적 사건은 조선인 주인이 명우의 따귀를 고막이 터지도록 갈기는 데서 빚어진다. 첫 번째로 간 병원의 의사는 명우가 귀를 몹시 맞아 중이염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치료를 해 주었으나 쉽게 낫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주변에 공정하다고 소문이 난 공의가 있는 병원에 찾아 갔다.

어머니는 의사가 그 식당으로 자로 다니고 또 그 주인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 까닭이 없다. 또 세상 평판과 영업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성이 없도록 마련하고 그러자니까 웬만한 것은 우물쭈물해 가는 것이 늘상 제게 유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속내를 알 까닭이 없었다.⁵⁾

3) 『한설야 단편집』 2, 태학사, 1989, 165면

4) 같은 책, 174면

5) 같은 책, 248면

믿었던 공의마저도 힘있는 식당주인의 편이었음을 명우 어머니가 알리 없다. 작가 한설야는 명우와 그 어머니의 편을 들고 있거니와 이쯤 오면 이 소설의 표제에 들어 있는 '태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게 된다. '태양'은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뛰어난 의술과 드높은 봉사정신을 겸비한 의사의 출현을 향한 일반인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머니가 간청을 하는데도 맞아서 커병이 생긴 것이라는 증명도 해 주지 않고 게다가 차도도 보이지 않는다. 공의에게도 고유명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한설야가 작품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공의를 묘사한데서 의사의 일반적인 상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선생은 의외로 덤덤하다. 사람의 죽고 사는 데 대해서 거이 감각을 잃은 듯 심상한 의사에게 그까지 커병쯤이 무어 그리 대단하랴 또 한 어머니의 원한이 아무리 크단들 그게 무어 그리 따가울까.

의사는 시속도 좋으려니와 언제 이만하면 일평생 아무 걱정 없는 만량태수의 신세다.

허나 명우의 병은 점점 더해질 뿐이었다.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누어서 일지 못하게 되었다.⁶⁾

세 번째로 찾아 간 병원은 제생병원 의사 최선생으로, 그는 커병에도 밝으려니와 서양인이 경영하는 예수교병원에 있었기에 정직하고 권세와 돈에 아부할 줄 모르는 의사로 정평이 나 있다. 처음에 최선생은 맞아도 몹씨 맞아서 고막이 상했다고 홍분하더니 맞은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중인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로 표변해 버리고 만다. 명우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따지고 하소연하고 해도 들어 주지 않는 요리집 주인을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최선생에게 떼어 달라고 하였다. 오히려 최선생은 명우를 뇌막염이라는 전염병을 앓는 환자로 보고하여 다른 병원에 가게 만들었다. 마침내 명우는 죽고 가족들도 모르게 즉시 화장당하고 만다. 최선생은 진단서를 떼어 달라는 명우 어머니에게 속이고 사망진단서를 떼 준다. 명우 어

6) 같은 책, 249면

머니는 원통하고 분한 나머지 목을 놓고 운다. 그녀는 죄의사를 향해 “네가 이놈 돈을 먹었구나 돈 먹구 거짓말을 했지. 내 자식을 팔아 먹었지”(261면) “네 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걸 내 안보구 죽을 줄 아는냐”(262면)하며 절규한다. 근 15년 전에 죄서해가 「박돌의 죽임」에서 박돌이 모친을 통해 뱉었던 한과 분노를 한설야가 명우 어머니를 통해 토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설야의 「태양은 병들다」는 우리소설에서 유례가 드문 악인 의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의사들은 한결같이 힘센 불의의 존재들과 결탁하면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약자 편에 서 있고 그 약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폭로하려 한 창작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프로작가인 한설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선인 식당주인이 가해자라면 의사들은 방조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朴景利의 「불신시대」(『현대문학』, 1957.8)는 여주인공 진영의 아들 문수가 아홉 살 나던 해 길에서 넘어져 뇌를 다쳐 병원에 갔으나 엉터리 의사 를 만나 준비성 없는 뇌수술을 받다 죽고 마는 사건을 보여 준다. 그런가 하면 진영이 지병인 폐결핵을 치료하러 갔다가 의사가 동네 전달인 것을 알고 놀라는 일과 그 후 폐결핵과 신경쇠약증에 시달리던 진영이 H병원에 갔다가 외국제 주사약의 빈병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보고 절망감과 불신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무책임한 의사, 실력 없는 의사,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의사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박경리는 의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중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들 따위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잖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 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⁷⁾

7) 박경리창작집 『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 33면

박경리는 인간의 육신의 병든 곳을 찾아 내고,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해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지닌 인술이 사기라든가 불성실이라든가 무능력과 같은 병에 걸려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삶이 암울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고발하게 된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⁸⁾는 구절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한국 의료계의 병든 모습을 잘 일러주는 촌철이 된다.

「불신시대」가 비판의식의 화살을 종교와 병원 양 쪽에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암흑시대」(『현대문학』, 1958.6-7)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인공 순영이는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고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난에 시달리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 명수가 친척 할아버지와 산에 놀러 갔다가 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것이 이 소설의 최초의 원인적 사건이 된다. S부속병원 응급실에서는 실습생인지 조수인지 모르는 젊은 사람 둘이 들어 왔다가 피를 사가지고 오라고 해 놓고는 몇 시간이고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 당숙이 피를 구하러 나간 사이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순영이가 병원에 있는 피로 빨리 수술해 달라고 했으나 간호원은 나중에 모자라면 그때 병원 보관분을 쓰자고 냉정하게 잘라 버린다. 당숙이 이 병원 저 병원 뛰어 다니면서 밤 열 시쯤 피를 구해 가지고 돌아 왔을 때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순영이는 “수술을 하는데 술처먹고 주정은 웬일고, 천금같은 내 자식 송아지처럼 칼질해 놓고 세상에 사이다 처먹고 할짓 다하고 수술인가 놀음인가 이따위 병원을 그냥 둔다말가, 사람 죽이는 병원, 불을 질러 없애버리지 아이구!”⁹⁾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나중에 홍분을 가라앉히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규모를 가진 S부속병원에는 그럼 피가 없듯이 약이 없듯이 그럼 엑스레이도 없었단 말인가”하고 병원의 무성의, 무책임, 물인정의 태도를 차근차근 되새긴다. 이처럼 이 소설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병원과 의사들의 부정적 행

8) 같은 책, 32면

9) 같은 책, 349면

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병원들이 준비물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급행료를 받아야 성의있는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고 환자 가족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 박경리의 이 두 작품은 병원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사회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의사소설의 모범작인 全光鏞의 「꺼빼딴리」(『사상계』, 1962.7)는 출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의사의 성격 창조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국 박사는 앞과 위만을 보며 사는 존재였다. 그는 해방 직후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일제 때의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친일분자로 찍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속으로는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이인국은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미국인 브라운의 도움으로 미국행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승리감을 만끽한다.

흥, 그 사마귀같은 일본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꿔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이 소설의 제목인 '꺼빼딴리'는 작품에서 이인국 박사가 소련군 고문관 스텐코프 소좌의 왼쪽 뺨에 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을 때 스텐코프가 기쁜 마음에 이인국 박사에게 '꺼빼딴리'라고 부른 데서 굳어진 것이다. 전광용은 의술은 백점이나 윤리의식은 영점에 가까운 이인국의 경우를 제시함에 있어 인과응보의 이치에 기대고 있다. 이인국은 전처와의 소생인 아들을 잃어 버렸으며 딸이 국제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방 직후 소련군 고문관에게 단단히 인정받게 된 이인국은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고 나서는 제 실길을 찾기 위해 월남하는 바람에 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기고 만다. 이인국이 시류에 따라가야 한다고 미국유학을 보낸 딸은 미국인 동양학 연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처음에 노발대발했던 이인국은 나중에는 미국인 사위를 이용하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작가가 지은 李仁國이라는 이름도 흥미롭다. ‘仁國’은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의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을 가진 仁術報國의 약자로 볼 수도 있다. 이인국이 경영하는 병원은 그 어느 병원보다도 진료비가 비쌌고 해방 몇 달 전에 한 한국청년 사상병의 치료를 거부한 일 한 가지만 떠올려도 ‘인국’이니 ‘인술보국’이니 하는 말은 오히려 반어나 풍자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된다.

의사 이인국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든지 최고가 되고 싶어했고 귀족처럼 살고자 했다. 실제로 그를 움직인 것은 생존본능보다 부, 명예, 지위에 대한 욕심이었다. 이러한 욕망은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양심을 등에 업지 안는 한 몰락과 파탄의 결말을 맞기 쉬운 것이다. 꺼빼딴리는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친일파, 친미파, 친소파 등과 같은 사대주의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볼 수 있다.

朴景利의 「波市」(1964)는 의사인 아버지와 의사인 아버지와 의대생인 아들이 주요인물로 설정되고 있는 점에서 의사소설의 범주에 넣을 만하다. 통영에서 20년동안 개업의로 일해 온 것에 대해 박의사는 의대생인 아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애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박의사는 의사들을 향해 어느 시대에서도 요구되기 마련인 공리주의를 “퇴폐한 낙오자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하나의 트집에 불과한 것”¹⁰⁾이라고 하면서 자기 같으면 영웅주의를 택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박의사는 아들 앞에서 이기주의자, 출세주의자로서의 얼굴을 드러 내 보인 셈이 된다. 박의사는 아들을 출세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선배의사의 딸인 죽희와 결혼하고 난 후 미국유학 가라고 권한다.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는 아들의 말에 박의사가 “모두 가난하고 배경없는 사람들만 전장에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나?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가는 줄 아나?”¹¹⁾고 하면서 군대도 빼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편다.

10) 박경리, 『파시』 상, 나남출판, 1996, 132면

11) 박경리, 『파시』 하, 313면

저는 아직 젊고 자존심도 있어서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는 개새끼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다 당하는 일이라면 저도 이곳에 남아서 함께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만은 확실한 일입니다¹²⁾

이에 아버지 박의사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름없는 한 전사가 되느니 보다 의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닦아 나감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¹³⁾라고 합리화한다. 아버지 박의사는 의사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면에서 의사지망생인 아들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결혼상대자에 대해서도 별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작품의 끝부분에 가서야 독자들은 박의사가 어째서 아들 웅주가 명화와 결혼하겠다는 것을 반대했는지 알게 되며 놀라게 된다. 박의사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혼 반대 이유를 밝힌다. 이처럼 박의사는 의사로서도 이기적이고 낚아 빠진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박의사는 꺼빼딴리와 마찬가지로 영점에 가까운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朴婉緒의 장편소설 「오만과 용상」(1982)은 박경리의 장편들 가운데서는 역사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뚜렷하게 나타난 작품이다. 친일파의 자손이면서 대기업체의 주인의 아들인 박현과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도배장이의 아들인 강남상은 어려서부터 친하기는 하나 팽행한 대립의식을 지닌 것으로 시작한다. 박현은 자기가 소설가가 되어 의사가 되는 강남상을 주인공으로 하는 의사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지녔으나 결국 박현은 의과대학으로 가고 강남상은 돈이 없어 대학가기를 포기하고 만다. 강남상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다.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악덕기업인은 현이를 낳고(--)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고(--)”

12) 같은 책, 314~315면

13) 같은 책, 316면

이 소설에서 박완서는 가문에 대한 열등감과 친일파 집안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찬 강남상의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현의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소설은 영자라는 인물의 죽음을 계기로 남편 강남상과 옛 날 애인 박현이 둘 다 각성하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하고 있다. “그 바보같은 계집애가 죽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생명에 눈뜨게 했다. 하마터면 생명에 눈먼 채 의사가 될 뻔했다. 두려운 일이었다”¹⁴⁾는 마지막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소설은 참인간에의 각성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환기시켜 준다.

유순하의 「금빛햇살」(『소설과 사상』, 1994 봄)은 병자소설이며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 자신이 의사들도 포기해 버린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소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소설은 마무리 단계에 가서 기적적으로 완쾌된 것은 의사의 힘만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는 병원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는 내내 그렇게 놀라워했다. “의학은 질병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의학은 영원히 질병의 뒤꽁무니만 헐떡거리며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어느날, 의사가 오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내게 해준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었다. 내가 준비해 두고 있는 대답이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바람나게 하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소가 솟아날 수도 있을 것같다는 거였다.¹⁵⁾

이 작품은 중간중간에서 의사나 간호원에 대해 오진을 잘 한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말투가 기본적으로 명령조라든가 하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로 채색하곤 했다.

박승택이라는 신학도가 나병에 걸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방황과 투쟁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는 김홍신의 「해방영장」(1981)은 나병환자들을 에워싼 부정적인 존재들에 대한 고발정신을 제 일차적인 창작동기로 삼는다. 정착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구라사업입네, 나학자입네, 기

14)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1994, 446면

1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4 한국문학작품선』, 1994, 156면

독교입네하면서 사살은 그들 자신의 이익, 그들 자신의 영달, 표창창과 감사패와 저명인사 티켓을 따내려는 쪽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훨씬 많지요”라는 폭로를 들을 수 있다. 김홍신은 「인술견학」이란 단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명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어느 나학자의 모습을 그려 보인 바 있다. 이소설은 이름난 나학자인 정박사가 다혜라는 나병 환자를 실험인간으로 이용한 나머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 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술견학」이나 「해방영장」은 나병의 역사기록과 나병환자에 대한 실태보고를 꾀한 점에서 오히려 병자소설에 가깝다.

III. 의사의 갈등과 고민을 그린 소설

「鄉老訪問醫生이라」(『대한매일신보』, 1905.12.21-1906.2.2)는 시골에서 큰 부자였다가 망해 버린 한 노인이 서울에 와 의생을 만나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당시의 시국담으로 시작한 노인과 의생은 현실을 병든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노인이 정부대관도 병들었고 일진회도 병들었다고 하자 의생은 정기산이나 청심환 같은 약을 먹이면 충군애국, 정치개명 등의 사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인은 그 정도의 처방으로 다스리기에는 병이 너무 깊다고 하였다. 이 소설은 당시의 조선사회를 병자 대하듯이 다각도로 진단하고 또 치료방법을 강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의생은 병적 상태에 대해 대중요법과 근본치유책을 병행해서 제시하고 있다.

나라의 병들음이 이러케 급한 때에 긴요한 약봉지를 차서업시 더져노와 화제를 연구안코 함부로 쓰게 드면 병이 점점 김흘지니 병근을 둘일손가 국력을 발발코자 하게드면 민력을 붓잡아야 될터이요 민력을 붓잡으라 하게드면 농공상업 권면하야 될터이오 농공상업 권면코자하게드면 교육에 힘을 써야 될터이오 교육을 힘쓰고자 하게드면 학교를 확장하야 될터이오¹⁶⁾

여기서 노인에 비해 의생은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

16) 『대한매일신보』, 1906.1.23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대신들이 의원의 입장이 되어 병세를 잘 파악하고 병근을 잘 다스리면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의생은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 젊은 데다 개혁정신이 충만한 지도자를 의생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朴鍾和의 「아버지와 아들」은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가 의학공부와 예수교를 권하는 것에 아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아들의 본심은 화가가 되는 것에 있었다. 아들은 목사의 설교에서도 아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예수교를 거부하고 술에 의지하게 된다. 이 소설은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구도덕의 반역자'가 되기로 맹세하는 것으로 끝난다.

李箕永의 「인간수업」(『조선중앙일보』, 1936.1.17-23)은 현호라는 젊은 철학도가 가출, 실천, 노동 등을 통해서 삼술주의와 자기창조론을 거쳐 마침내 노동주의로 귀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동화은행 사장의 아들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호는 신경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서 동서양 철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현호는 동서양 철학이 자기창조, 자기발견, 자기표현을 강조한 것을 깨닫고는 이의 실천적인 깨달음을 위해 가출을 결심하고 나서 의사친구 박정양에게 '인생의 공기'를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처음에는 의사친구가 반대하였다. 현호는 임시거처를 박정양의 병원인 명학의원으로 옮겨 놓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집을 나와 있는 동안 현호는 의사친구 박정양과의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자기의 사상을 정리하고 표출한 만큼 박정양은 현호가 자기의 철학사상을 확립하는데 또 그 사상을 실천에 옮기는데 결정적으로 매개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의사는 주인공 현호에 대해 조력자가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기도 하다.

崔仁旭의 「목숨」(『문예』, 1950.12)은 서울 한강로에서 병원을 운영해 오던 한 의사가 6·25 직후 며칠 사이에 피란을 가지 못했다가 인공치하가 되어 버리자 굴욕감과 공포심에 사로 잡혀 결국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K병원 원장인 조병기는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 올 그 무렵에 육군중위인 둘째 아들이 트럭을 구해 가지고 와 피란가자고 종용했을 때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만 보내기로 결정한다. 조병기 원장은

앞으로 있을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가지고 출발하여 며칠 후에 대전에서 가족들과 합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병기 원장은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피란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단은 조병기원장이 식구들과 피란을 가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 측의 발표를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일 수도 있고 군인인 아들의 피란종용에 잠깐 고민하다가 이기심과 보신주의를 뛰어 넘는 결단을 내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조병기 원장은 “지금 조국의 운명이 최후의 일전에 달린 이 엄숙한 시각에 군부의 공용차를 일개인의 사용에 돌려 가족과 살림을 실어내다니, 생명도 귀하고 재산도 중하지만 한 계단 초월해서 잠시 내드린 발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야 할 일이었다”¹⁷⁾는 내용의 강직하고 이타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조원장이 의사로서의 자기의 직분과 그에 따른 여러 기구들에 크게 집착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조원장은 인공치하로 들어 가면 자기에게는 수난이 닥쳐올 것이며 또 그 수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끝에 약을 먹고 자살하고 만다. 보신주의라든가 이기적인 본능까지도 이겨낸 조원장이 공포심과 불안감에 굴복한 나머지 자살했다는 것은 어색한 데가 있다.

李清俊의 「병신과 머저리」(『창작과 비평』, 1966 가을호)는 중편소설임에도 내용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의사인 형은 수술이 잘못되어 열 살 짜리 소녀가 죽은 것에 대해 심한 자책감에 빠진 끝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형이 쓰는 소설에 관심을 갖는 ‘나’는 형이 한국전쟁 때 실제 겪었던 일을 소설화하려는 것임을 알게 된다. 형의 소설은 중상을 입은 김일병에게 전우 오관모가 살의를 느낀다는 대목에서 중단된다. ‘내’가 소설의 결말을 형이 김일병을 치치하는 것으로 맷어 놓자 형은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고 다시 관모를 작중의 ‘내’(형)가 죽이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녀 환자가 죽어버린 사건은 죄의식이 중심이 된 형의 잠재의식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었다. 형은 6·25 때의 일을 소재로 하여 소설을 씀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오랫동안 억압하여 왔던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

17) 『문예』, 1950.12, 94면

던 것이며 또 제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전우를 죽였던 오관모를 향해 복수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형이 소녀환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6·25 참전 후 십여 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비밀을 털어내는 작업, 즉 소설 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심리로 해방감과 복수심 이외에 용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형은 자신의 과거를 한 편의 소설로 형상화해 놓음으로써 김일병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동시에 오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른다. 형은 그후 십년 동안 ‘동료를 죽임으로써 나는 살 수 있었다’는 죄책감을 자기 내면의 저충에다 간직한 채 살아온 것이다. 이처럼 「병신과 머저리」는 특별한 의학지식을 활용하지 않은 점에서, 또 의술이나 환자보다는 소설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의사를 설정한 점에서 독특한 의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全光鏞의 「총매화」(『사상계』, 1960.9)는 산부인과 의사 충이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문제의 여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현미경을 들여다 보는 가운데 환희와 자신감에 젖어 있는 것을 서두로 뛴 다음 바로 그 뒤에다가 충의 병원으로 그 여인이 어떤 사연을 안고 찾아왔는가 하는데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소설은 장안에 소문난 기생이 낳은 사생아이며 소아마비에 걸린 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충의 열등감과 자폐증 그리고 이따금 고개를 내미는 공격성향을 그려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 충은 불륜이 낳은 존재라는 점에 깊은 열등감을 가졌다. 충의 성장기는 신체적 불구와 사생아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빠져 나가려고 애쓴 시기로 설명되기도 한다. 충은 한때 비관자살을 시도한 그후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주의자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후 충은 늘 신변의 위협이 절박하는 경우, 안온한 도피보다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말하자면 해방 다음에 S국립대학 창립에 대한 국대안 반대 운동이 각 대학에 파급되었을 때 그 선봉에 나섰다든지, 6·25사변이 발발되었을 때 첫 고비에서 군의관으로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학대의 연장이기도 했다.

전쟁통에 졸부가 된 늙은 흘아비에게 시집 간 젊은 여인이 돈과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인공수정이라도 하여 아기를 갖고 싶다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을 의사 충은 결코 긍정적인 눈길로 보지 않는다. 충은 인공수정의 방법은 자기와 같은 사생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작품은 “(피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이 여인에게 정확한 수태를 시켜야지) 충은 성난 이리처럼 여인을 끌어 안고 절름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침실로 통하는 도어를 박차고 방 속으로 들어섰다”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충이 여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위는 한 인간으로서의 외상극복이라는 의미만으로 새기기는 어렵다. 이때의 행위는 충이 사생아이고 불구자이면서 의사라는 점이 동시에 연결되어야지만 제대로 의미화될 수 있다.

李清俊의 「당신들의 천국」(1976)은 5·16 직후 소록도 나환자 병원 원장으로 현역장교인 조백현 대령이 부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은 조백현 대령이 고흥군의 봉암반도와 풍양의 풍남반도를 그 중간지점에 자리 잡은 오마도를 디딤목으로 이어 막아 3백 여만 평의 농토를 얻어 내자는 사업을 미감아 출신의 보건과장인 이상욱과 나환자촌의 황희백 장로 등을 중심으로 한 나환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강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공사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예정처럼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희생도 가져 온다. 조백현 대령은 오천 여명의 나환자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상욱 과장처럼 반대하는 사람은 이 천국은 나환자들의 천국이기보다는 병원장 개인의 천국이 아니냐는 반론을 펼친다. 조백현 원장이 원생 대표들과 만나 공사의 합당성을 설득시키려 하자 한 원생이 도대체 원장은 의사냐 사회사업가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작품의 나레이터는 조원장도 사실 자신이 의사인지 사회사업가인지 의문을 가져 온 참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해답을 구해보려 해도 마땅한 대답이 구해지지 않던 물음이었다. 그는 유독 이 병의 병원체, 발병, 전염, 치료 등에 대해 의사로서 엄격히 의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려 했을 때와, 이 병에 대해 지나치게 부당한 일반인 통념과 관련하여 병원 원장으로서보다 인간적인 환자 관리자의 입장에 서려 했을 때와는 차이지는 일이 여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조원장이란 인물은 원래가 그런 자자분한 태보다는 결단과 행동이 늘 앞서 버리곤 하는 위인이었다.¹⁸⁾

조백현 원장은 원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복을 누리게끔 해 주려 한다는 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임한다. 조원장은 오마도 개간공사 도중 마산 국립병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치겠다는 의욕을 갖는다. 이에 이상욱 과장은 일을 그만 두고 떠나 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다. 이 편지에서 이상욱 아니 작가 이청준은 천국론을 펼치게 된다.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조백현 원장의 의사로서의 행동보다는 사회사업가로서의 행동이 더욱 문제적인 것이 된다.

朴婉緒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한국문학』, 1981.1)은 기지촌에서 근 삼십 년 동안 산부인과를 경영한 여의사가 도시계획에 걸려 사흘 후에 병원이 들어 있는 건물이 철거되기로 한 그때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과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합쳐 놓은 것이다. 전쟁 중에 강간 당한 경험에 있는 여의사인 '나'는 1953년 봄에 병원을 차릴 적에는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지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질병이상의 고독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꿈으로 삼았다. 공교롭게도 여의사는 개업한 첫날에만 아기를 받았을 뿐 그후로는 완전히 소파수술 전문의로 알려져 왔다. 강간체험에서 비롯된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여자에 대한 연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게 된 여의사 '나'는 비정하고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일을 했으면서도 여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여성성에 대해서도 차거운 시선을 갖게 되었고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병원을 문닫기 바로 하루 전날 한 소녀가 낳은 아기를 살리려다 결국 죽이게 되자 아기를 안고 아침 예배를 보려 가는 신도들 틈에 섞여 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여의사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까맣게 잊어 버리고 살았던 과거와 언제부터인가 부정했던 여성성에로 복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일 밖에 몰랐던 한 여의사의 내면세계를 차분하게 탐조하고 있다.

단편소설집 『새를 찾아서』(1996)의 작가 윤명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

18)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1, 202면

리학을 전공하고 그를 근거로 십수년간 국립정신병원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새를 찾아서』에 수록되어 있는 9편의 중단편 중에서 「새를 찾아서」, 「다리 위에서」, 「갑사 가는 길」, 「목소리」 등의 작품들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치료사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를 찾아서」에서는 두 남녀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고, 「다리 위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읽은 소설의 내용을 예비관념으로 삼으면서 중학교 때의 선생을 죽이고 싶다는 환자와 상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갑사 가는 길」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정신과 여의사가 오랫동안 지녀온 마음의 상처를 열어 보이고 있다. 「목소리」는 한 여자 임상연구강사가 한 살인자의 정신을 조심스럽게 감정하는 긴장된 분위기로 체워져 있다. 이상의 네 편은 정통 의사소설이 된다.

「다리 위에서」는 작가 나름대로 소설가와 의사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의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의료행위를 중심사건으로 다룬 의사소설의 의미를 밝혀 주는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와 소설가는 다른 것일까? 소설가가 고통의 실체를 이야기로 만든다면,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바로 잡을 뿐이다. 정신과도 예외는 아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환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욕망, 죄의식 등을 끄집어 내 환자로 하여금 그것들과 대면케 해 담판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와 소설가 모두 진실을 찾아 가는 과정에 있는 점은 같다.¹⁹⁾

「새를 찾아서」는 출생의 비밀을 지닌 회수라는 정신과 여의사가 고향 저수지에서 올빼미를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때마침 찾아 온 한 남자 후배 의사와 하룻밤을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보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사로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회수가 시작한 사진촬영 취미는 이제 철학을 지닌 진실 모색의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더러

19) 윤명제, 『새를 찾아서』, 고려원, 1996, 222~223면

운 것이 깨끗이 기록되는 순간이라고 믿고 있으며”, “사진사도 소설가, 신문 기자와 마찬가지로 위선의 가면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수는 사진 찍기에 환자 치료 못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 작품은 정신병이라든가 정신병환자의 행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尹厚明의 단편소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현대문학』, 1993.12)는 의사소설이기보다는 환자소설에 가까운 것임에도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검사하는 일상적 모습을 잘 그려 보이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다면적 인성검사, 심리검사, 문장완성검사,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소변 검사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을 보면 정신과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된다.

IV. 의사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린 소설

“어떤 의사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金東仁의 단편소설 「붉은 산」(『삼천리』, 1932.4)은 화자이기는 하나 주인공은 아닌 의사가 계몽주의자로 역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삶’이라는 별명을 지닌 정익호라는 주인공은 의사인 ‘나’의 눈길을 우연히 끌게 된다.

그것은 내가 만주를 여행할 때의 일이었다. 만주의 풍속도 좀 살필 겸 아직 젓 문명의 세계를 밟지못한 그들의 새에 퍼져 있는 병을 좀 조사할겸해서 일 년의 고향을 예산하여 가지고 만주를 시시끌끌이 다 돌아 온 적이 있었다. 그 때에 ××촌이라 하는 조그만 촌에서 본일을 여기에 적고자 한다²⁰⁾

정익호는 투전질, 싸움질, 말부림 잘하고 색시들에게 덤벼들기 잘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계대상이 된 존재다. 정익호는 이 마을에서 누구로부터든지 ‘커다란 암종’으로 취급되어 있다. 그런데 의사인 ‘내’가 마을을 떠나기 바로 전날 송첨지라는 노인이 그해 소출을 나귀에 싣고 중국인 지주가 사는 촌으

20) 『동인전집』 8권, 홍자출판사, 1967, 138면

로 갔다가 소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아 죽어서 돌아 온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용성거리기는 하면서도 정작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여는 의사는 여의 직업상 송첨지의 시체를 검시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여는 삶을 만났다. 키가 작은 삶을 여는 내려다 보았다. 삶은 여를 쳐다 보았다. 「가련한 인생아. 인종의 거머리야. 가치없는 인생아. 밥버리지야. 기생충 아!」 여는 삶에게 말했다. 「송첨지가 죽은 줄 아나?」 여의 말에 아직껏 여를 쳐다보고 있던 삶의 얼굴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여가 발을 떼려는 순간 얼핏 삶의 얼굴에 나타난 비장한 표정을 여는 넘길 수가 없었다.²¹⁾

이튿날 삶은 중국인 지주 집에 가서 송첨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다 여러 명한테 맞아 허리가 꺾이고 만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눈을 감는다. 삶의 개선은 의사인 '나'의 꾸중과 가르침을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나'는 동포들이 사는 만주땅에 역학 조사하러 왔다가 한 사람의 민족주의자요 행동주의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김동인은 민족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지닌 의사의 상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李泰俊의 「제2의 운명」(『조선중앙일보』, 1933.8.25-1934.3.23)의 중심사건의 하나는 장안 갑부 박자작의 아들로, 결혼 경험이 있고 여성편력이 있는 박순구의 집요한 구애작전으로 심천숙은 윤필재를 배신하고 박순구와 결혼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평소에 박자작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필재는 이를 다 끊어버리고 여자를 빼앗긴 고통과 고학의 고달픔 속에서 살아간다. 필재는 모교의 교사로 생활하며 여선생 남마리아와 가깝게 지내던 중 철원에 있는 관동의숙이 경영난에 허덕거린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그 학교를 살리기로 결심한다. 한마디로 농촌운동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남마리아도 교사생활을 다 청산하고 용담마을에 내려 와 적극적으로 필재를 돋는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학교를 살려 내었고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하

21) 같은 책, 141면

여 의사노릇과 교사노릇을 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농촌에서의 의사노릇이 계몽운동의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도 않았고 또 길게 묘사되지도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蔡萬植의 「탁류」(『조선일보』, 1937.10.13-1938.5.17)는 세태소설의 모델로 평가되어 왔다. 세태소설이라는 규정은 정주사같은 속물, 고태수나 장형보와 같은 사기꾼, 초봉이와 같은 무지한 자기희생자에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결과로 나온 것이다. 세태소설이라는 유형은 의사인 남승재 같은 선량하면서도 이타적이고 미래타개적인 인물을 읊지로 몰아가는 결과가 되기 쉽다. 남승재를 중심으로 할 경우 「탁류」는 의사소설적 요소와 지사소설적 요소가 분명하게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봉이의 아버지 정주사의 타락은 남승재를 똑똑하기는 하나 고아이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사윗감에서 밀어 내버린 데서 시작된다. 정주사 부인 유씨는 초봉이와 남승재가 서로 좋아하는 눈치였는데 저희들 뜻대로 해주었더라면 지금 떨이나 자기나 의사사위 넥을 보았을 것이라고 마냥 아쉬워한다.

남승재는 군산에서 야학활동을 벌이고 무료병원을 경영하였다. S여학교의 교실을 오후와 밤에만 빌려서 보통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을 모아 놓고 조선어, 일본어, 산술 등을 가르쳐주었다. 종일 짚는 아이들을 보면 있는 대로 돈을 털어 먹는 것을 사다 주기도 하였다. 병원에서 받는 월급 60원으로 생활비 10원, 약값 15원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학생들 먹이는 값으로 들어 간다. 남승재는 돈이 없어 더 많은 사람을 도와 주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면서 불만과 우울에 휩싸여 지냈다.

승재가 가난한 사람의 병든 것을 쪼차 다니면서 돈 밖지 안코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요새에서는 좁다고해도 인구가 육만명이 넘는 이 군산바닥에 구석구석 물으는데 업시 고루 퍼젓고 그래서 위급한데도 어찌하지 못하는 병자만 돌아보 아주제도 항용 열쇠은 더된다.

그밖에 종기야 가슴애피야하고 모여드는 사람은 유루 헤일수가 업다 큼직한 종합병원하나를 채리고 안젓서도 그사람들을 골고루 만족히 치료해줄수는 업슬 것가탓다 그런 것을 낫에는 병원일을 보이주고나서 오후와 밤으로만 그 수용을 하자하니 도저히 승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재주가 업셌다.

더구나 돈 그까짓 삼사십원을 가지고 그 수단 배 고픈 사람들을 갈리 맥이

자니 마치 시장한판에 밥알이나 한알갱이 입에다 너코 씹는것가티 간에도 차지 안했다. 대체 조고만한 이 군산바닥이 이러할 바이면 조선전체는 어떠할꼬 이 것을 생각해보았을때에 승재는 딱 기가 질렸다. (중략)

가난과 무지와 병으로해서 불행한 사람이 만흔술까지는 알았서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느냐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승재의 지금의 결론은 절망적이다. 그 수태만흔 불행한 사람을 약삭발리 한두사람이 구제할 수는 업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고서 차마 못해 돈푼이나 되려 구제니 또는 치료니 해주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다 는니보다도 우선 제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제노릇에 지나지못하는 것이다.²²⁾

남승재는 후반부에서는 서울에 올라온 이후 친구가 아현동에다 차린 실비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승재는 군산에서는 대승적이면서 실천적인 존재로, 서울에 와서는 가능성의 넘치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남승재는 의료활동과 이에서 비롯된 야학활동을 하는 사이에 1930년대 당시의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넣어 헌신적인 의사노릇과 야학교사노릇을 하면서도 겸손해 하고 생색을 내는 법이 없다. 남승재의 의술은 인술을 지나 신념이나 신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金南天의 「祭退膳」(『조광』, 1937.10)도 의사소설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요무대가 된 삼각정 순안의원을 묘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병원과 의사에게 그리 끊지 않은 시선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순안의원이란 병원이름을 보고 반대의 뜻을 생각한다든가 의사 최형준이란 문패를 보고 실망하게 된다고 묘사하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순안의원 원장인 최형준이 아니라 그의 동기동창이며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없는 의대증퇴생 박경호이다. 박경호는 어떤 존재인가.

박경호는 부내 어떤 의학전문학교 사년에 재학하다가 첫학기를 지내고 여름 방학이 될려고 할 때에 독서회사전에 걸려서 감옥으로 갔다. 단순한 독서회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 이년을 받았으나 학생인 탓으로 겨우 집행유예가 되었다. 이력저력 삼년만에 시꼴로 가니 한달도 정양하지 못한 그를다리고 면

22) 『조선일보』, 1938.3.21

협위원장인 그의 아버지는 서울로 달려 왔다. (중략) 가진 수단을 써서 복교운동을 하였으나 박경호만은 헐수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²³⁾

박경호는 아버지에게 일년 안에 의사면허시험에 패스할 테니 믿어 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고향으로 보내었다. 박경호는 동기동창생이며 순안의원 원장인 최형준의 배려로 조수노릇을 하기로 하였다. 이 작품의 중심사건은 박경호가 장안에 소문난 기생 향난이 물핀중독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데서 시작된다. 순안의원에 입원시켜 놓고 물핀중독을 치료하려 했으나 향난이는 경호의 지시를 어기면서 몰래 약을 구해 주사를 맞는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호의 치료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선이든 누구든 자기를 비웃고 경멸하는 사람은 내일이 지난 뒤에 만나보자.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아 깨끄러져 가는 사람을 하나 바로 잡는 행동이 훨씬 훌륭한 것을 내일이면 알수있을 것이다. 자기는 결코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고 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면서 다만 한사람이라도 구할려는 양심있는 행동을 비웃는 것은 오른일이라고 할수있을가.²⁴⁾

이 소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치료해 보자는 박경호의 양심적인 태도와 숭고한 의지가 수포로 돌아 가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다. 과거의 경력으로 보면 박경호가 사명감을 갖고 물핀중독환자를 치료하려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李光洙의 장편소설 「사랑」(1938.8에 상권 탈고, 1939.4에 하권 탈고)은 안빈내과소아과 원장 안빈과 그 안빈을 평생 사모하고 존경하면서 영어교사, 간호원, 여의사의 길을 걸어 간 석순옥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에서 사랑소설이자 의사소설이 된다. 이때의 사랑소설적 요소는 의사소설로서의 완성에 적극 기여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사랑」에서의 '사랑'은 허영과 석순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로스의 차원에서 형상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안빈과 석순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가페적인 수준에서 이야-

23) 김남천, 『소년행』, 학예사, 1939, 204~205면

24) 위의 책, 222면

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모로젠이 전자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 아우라몬은 후자를 풀이해 주고 있다.

명의로서의 안빈의 첫 모습은 폐병환자의 정신적 안정이란 문제에 대한 집념어린 연구자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폐병환자의 정신작용의 항진 원인, 신체조직이나 투병력의 소모원인, 양분된 정신작용의 억압방법 등에 대해 탐구심을 가져 왔다. 안빈은 토끼, 고양이, 개 등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여 공포의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그리고 안빈을 사모하는 석순옥의 혈액 속에서는 유황질과 암모니아질이 없는 아우라몬을 검출해 내었고 순옥을 욕망하는 시인 허영으로부터는 아모로겐을 검출해 내었다. 마침내 안빈은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생리학으로는 의학박사 학위를 얻게 되고 심리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얻어 생리학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고 신문지상에 학위논문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명의로서의 안빈의 두 번째 모습은 그의 남다른 성실한 치료 자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어떤 정도까지 그 병의 성질을 잘 알아 들도록 병인 당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을 주고 병의 가장 해로운 것이 회로애락의 감정을 빌하여 동요시키는 것이요, 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힘과 몸과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준다. 환자들은 안빈의 이 정신적 치료방법을 신임하였다.²⁵⁾

위의 두 가지 모습만 보아도 안빈은 태어난 의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의사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20대 초반에는 시와 소설을 써서 큰 이름을 얻었고 문예지 「신문예」를 주관하여 문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어느날 그는 문득 “문학적 작품이라는 것이 대체 인류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 도리어 청년남녀의 정신의 배탈이 나게 하고 도덕의 신경쇠약이 되게 하는 것이나 아닌가?”²⁶⁾ 하고 의문을 품

25) 이광수, 『사랑』, 문학사상사, 1994, 80면

고는 다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병들어 불쌍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 안빈의 성미에 맞았다. 안빈은 모든 병자를 다 무료로 치료하고 싶었으나 그에게 그만한 복력이 없는 것이 슬펐다. 만일 돈이 많을진텐 안빈은 돈을 말하지 아니하고 병자를 보았을 것이다. 이러지 못하는 것을 안빈은 복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는다. 복혜구족(福慧具足)할 때에 비로소 대의왕(大醫王)이 되는 것이어서, 그대에야 중생의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하거니와, 안빈은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한 정도에 달할 때까지는 안빈은 다만 환자가 진찰료와 약값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독촉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왕진을 청하더라도 걸어서라도 가 보는 것으로 겨우 양심의 만족을 얻는 것이었다²⁷⁾

이처럼 안빈은 실력있는 의사의 상과 사회봉사하는 의사의 상을 겹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에서는 안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봉사하는 모습을 이 이상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안빈은 문사로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사회봉사자이기보다는 사상가에 가깝다. 안빈이 특히 석순옥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곧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여 충고하는 장면이 작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빈은 불교에 가장 많이 기대고 있다. 작가 이광수의 사상적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끝부분에 가서 안빈은 회갑을 맞아 자신이 의사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 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뱀 앞 자리에 내세운다.

이 소설은 작중인물의 성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가 구성에 있어 생략의 묘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가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화자가 적극 나서서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한다든가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묘사하는데 있어 리얼리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인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광수는 독자들을 평생 안빈을 완벽한 의사요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를 보아온 석순옥처럼 만들

26) 같은 책, 143면

27) 같은 책, 144면

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랑」이 의사소설로서 명작에 들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말았다.

嚴興燮의 『인생사막』(『신세기』, 1940.1-1941.6)의 주인공 오세형은 인단장사를 하면서 현대의학강습소에 다닐 때 잡지 「현대의학」에 논문이 일등 당선된 적이 있고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이 굳은 의지와 비범한 능력을 두루 갖춘 젊은이로 그려지고 있다. 오세형의 긍정적이면서도 비범한 면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함남의 어느 항구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자 그는 나흘 앞둔 결혼식을 한달 뒤로 연기하면서까지 조선의사협회가 주체가 된 의료봉사대에 참여하여 회생적으로 활동한다. 과로가 겹친 나머지 장질부사에 걸리고 만다. 의사소설의 범주에 들어 갈 수도 있는 『인생사막』은 주인공 오세형을 성공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펼어 가고 있지만 정작 성공적인 소설의 수준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의 하나로 작가 자신이 최소한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머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孫昌涉의 「잉여인간」(『사상계』, 1958.9)은 작가 자신의 인간관과 소설구성방법의 면에서 보인 일대 변화를 잘 실증해 준 「고독한 영웅」, 「잡초의 의지」 등의 연장선에 놓고 보아야 한다. 이 작품의 새로움의 하나는 치과의사 서만기, 간호원 홍인숙, 처제 은주 등과 같은 건강한 인물들을 작중의 주요인물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병신과 병자의 소설로 묶여지는 옛날 작품같으면 천봉우나 채익준과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단연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천봉우나 채익준은 합리성, 정직성, 온건함, 견인주의적 자세 등의 덕목에 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까지 갖춘 서만기의 옆에 서 있게 되면서 그들의 무력감, 무책임성, 비사회적 사고와 태도 등은 더욱 선명하게 음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모범적이고 반듯하고 윤리적인 인물에 대해 시니시즘으로 대하는 것을 자기류의 특질로 내보였던 손창섭은 서만기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잉여인간」에서 서만기는 거의 단점이 없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서만기에게 ‘영국풍의 신사’, ‘출중한 의료기술’, ‘귀공자풍’, ‘풍부

한 교양' 등의 찬사를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여자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서만기는 처가식구까지 합쳐 열네 명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늘 쪼들리고 허덕거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짜증낸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려졌다. "만기는 자기에게 지워진 고통을 혼자서만 이를 사려물고 이겨나갔다. 하두 고민이 심 할 때는 입맛을 잊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한 만기의 심증을 아내만은 알았다"²⁸⁾와 같이 인고와 상호이해로 넘친 부부의 모습은 손창섭의 소설에서는 찾기 어렵다.

韓戊澈은 「정의사」(『문예』, 1950.6), 「우리사이 모든 것이」(『현대문학』, 1971.11), 「양심」(『현대문학』, 1976.6), 「송곳」(『소설문학』, 1982.6) 등과 같은 여러 편의 의사등장 소설을 써내었는데 대체로 의사의 존재를 긍정적이거나 비범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 「정의사」의 끝부분에서는 어떤 환자의 죽음이든지 냉정하게 넘기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사는 의대생 시절에는 교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우수했으나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시골에 왔다가는 그냥 놀라앉고 말았다. 정의사는 돈도 못 벌고 기술도 낙후되어 가는 일개 시골의사로 변해 버렸으나 인술과 따뜻한 가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사이 모든 것이」는 한 무숙의 둘째 아들의 실화로서 환자를 위해 희생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사의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형편없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는 스테이드 보드 시험에 대어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순간적인 출음운전 때문에 차가 전복하고만 사건을 들려주고 있다. 이 작품은 환자를 위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의사의상을 보여 준 의사소설에 넣을 수 있다. 「양심」에서 주인공 윤박사는 젊게 살고 싶다는 한 노인의 과욕 때문에 그 아들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무숙은 이렇듯 여러 작품들을 통해 의사의 미덕을 희생심, 따뜻함, 자연애의 순옹에서 찾아내고 있다.

28) 『사상계』, 1958.9, 366면

1890년대에서 1945년 해방 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나키스트 송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송수익, 공허, 정도규, 수국이 같은 인물들이 주체가 된 사건들이 빼대를 이루고 있다면 무명의 존재들이 주역이 된 사건들은 살과 피를 이룬다. 그런데 작가 조정래는 송수익이나 감골댁이나 정도규 등과 같은 주요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사소설의 그릇에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의 수난의 민족사는 감골댁 집안, 송수익과 그 아들들, 정도규 형제 등이 이루어 내는 가족사에 응축되어 있다. 송수익/송가원·송중원, 천수동/천상길, 지삼출/지민복, 손관석/손일남, 공허/전동걸 등의 부자관계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쟁적 인물의 집에서 투쟁적 인물이 나온다는 발상법을 취한 것도 이 소설의 한 특징이 된다. 송수익은 학교 설립사업 참여, 의병활동 지휘, 만주 이주, 대종교 입교, 무정부주의자로의 전신 등을 거쳤다가 관동군에 불잡혀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옥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송수익의 큰 아들 송중원은 고등학교 때 창가보급운동과 3·1운동에 가담했다 불잡혀 2년 동안을 옥살이 한 후 사회주의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송수익의 둘째 아들 송가원은 의학을 공부하던 중 공허스님 소개로 명창 옥비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송수익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아예 만주로 건너가서 아버지 옥바라지를 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송가원은 옥비와 함께 항일유격대 병원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허준의 일대기를 담은 이은성의 『동의보감』(1990)은 원래 네권으로 간행될 예정이었으나 세권으로 끄치고 만 미완성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허준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적인 의사, 조력자적인 의사, 대립적인 의사 등 여러 의사의 상이 나타난다. 양생과 조제에서 제일 가는 김민세, 천하제일의 부술을 자랑하는 안광익, 침술이 당대제일이라고 하는 어의 양예수, 그 양예수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허준에게 살신성인으로써 가르침을 준 유의태 등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고 있는 점에서 의사열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구세제민의 정신과 신품의 의술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학지식을 들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는 작중 인물들 사이의 많은 갈등과 대결이 그려지고 있되, 유의태 부자의 갈등도 주목할 만하다. 유의태는 내의원에 합격한 아들이 고향에 남아 선대가 물려 준 의원이란 가업을 이어받길 원했지만 아들 도지는 출세를 의해 내의원으로 달아나 버린다. 평소에 유의태는 “치병용약의 술이나 의료제민의 이상에 앞서 의원이 의원이고자 하는 그 심지와 품성을 더욱 중히 여겨왔던 터이다”²⁹⁾ 재주보다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본 것이다. 재주는 모자라면 노력과 수련을 통해 채우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의 길에는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 있다. 병자를 연민을 담아 보는 눈이 업을 출세나 치부의 욕망과 바꿀 수 없다는 무심지의(無心之醫)의 바탕. 그래서 의의 첫 단계에서 부딪치는 심병(審病)의 술을 예로 누누이 유의태는 주장했었다. 신(神)·성(聲)·공(工)·교(巧)라 이름하는 심병의 수단에 신은 병을 짚는데 바라보기만하여 이는 경지로서 그 바라본다 함은(中략) 그러나 이 지식은 연륜과 훈련으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설사 그것들을 차례로 거치고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작 병자의 아픈 데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혼하디혼하 의원일 뿐이라는 것이 유의태의 결론이었다.

영달의 길이 아닌 의, 치부의 길이 아닌 의, 병들어 아파하고 앓는 이들의 땀젖은 돈으로 제 일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의----세상이 원하고 그 자신 절절히 소망했던 참된 의원의 자질을 유의태는 자기의 자식에게서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³⁰⁾

허준에게는 유의태와 김민세라는 두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허준은 유의태가 의술을 가르쳐 주었다면 김민세는 의사로서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무엇인가, 의원은 어때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가르쳐준 이는 유의태다. 천만마디 훈도보다 더욱 준열하고 확실하게 의원의 참모습과 그 존재를 보여준 이는 유의태 그 분이다. 자신의 온몸을 혼쾌히 던져 인간 내부의 구석구석 빼마디의 가닥가닥을 보여 주었던 사람---자신의 집도 속에 전신이

29) 위의 책, 174면

30) 같은 책, 175면

갈가리 찢기어질 줄 알면서도 그 피마다 속에서 태연했던 이여(중략)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인 유의태---

김민세 또한 어찌 범인이었으리. 그 또한 미천한 출신이었고 갈망해 마지 않던 이의라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보장받았건만 그 보장을 현신짝처럼 버리고 악질(惡疾·문동병)에 신음하는 이들을 돋고자 야(野)에 묻힌 그 행동도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감동이었다.³¹⁾

허준은 유의태로부터는 의(醫)의 술과 학을 배웠으며 김민세로부터는 무료시술로 구체화되는 의(義)를 배운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소설 「동의보감」은 바로 허준이 신품(神稟)과 의인(義人)에 도달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허준 자신이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열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승 유의태의 시신을 유언대로 해부하여 허준이 살아 있는 의학공부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김민세가 문동병 환자들한테 가버리게 된 사연도 충분히 감동을 준다.

원래 사상토론을 잘 내 보여 온 정찬은 「별들의 냄새」(『작가세계』, 1994 봄)에서 세속적 의미의 성공은 했지만 내적으로는 지쳐있는 한 사내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친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해서 강문규라는 특이한 정신병 환자를 목격하는 것을 원인적 사건으로 삼고 있다. 은행원이었고 예금유치 실력도 탁월해 고속승진했던 강문규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후각신경이 남달리 예민해져 남들은 맡을 수 없는 아름다운 냄새를 맡는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신과의사는 환자사랑과 인간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토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참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의 털어 놓기도 한다. 환자사랑과 인간사랑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행복해 하는 환자를 보면 정신과 의사는 갈등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작중의 정신과 의사는 문명비판론자로와 자본주의비판론자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인간심성을 파괴하고 문명사회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발전으로 보지 않으면서 환경론이 중심이 되는 현세극복론의 사상가로 나아가고 있다. 정신과 의사는 의학에서 철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별들의 냄새」를 통해 작가

31) 같은 책, 126~127면

정찬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길의 하나는 '철학하는' 의사를 지향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일깨워 준 셈이 된다.

V. 결 론

의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나도향, 최서해, 강경애, 한설야, 전광용, 박경리, 박완서, 유순하 등의 작품들을 추려 내었다. 해방 이전의 작가들이든 해방 이후의 작가들이든 이들은 현실비판정신이 강한 리얼리스트로 뮤여질 수 있다. 이를 작가들은 의사는 부자라든가 지배층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으로 보거나 이기주의, 상업주의 등의 병폐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한 것이 된다.

의사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 준 작가들로는 김동인, 채만식, 김남천, 이광수, 엄홍섭, 손창섭, 한무숙, 조정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작가들은 단색으로 묶기는 어렵다. 이를 작가들은 나름대로 직접 겪은 긍정적인 의사의 모습을 그려내면서도 평소 자신들이 되고 싶어했던 인간상을 투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 끝에 김동인은 교사적인 인물에서, 채만식은 자기희생적인 사회사업가에서, 김남천은 이념적인 존재에서, 이광수는 지도자에서, 한무숙은 고결한 인물에서, 손창섭은 현실극복형의 인간에서 긍정적인 의사의상을 찾아내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문단』, 『대한매일신보』, 『문예』, 『조선일보』, 『사상계』
한설야, 『한설야 단편집』, 태학사, 1989
박경리, 『불신시대』, 동민문화사, 1963
박경리, 『파시』, 나남출판, 1996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1994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1
윤명제, 『새를 찾아서』, 고려원, 1996
김동인, 『동인전집』, 홍자출판사, 1967
김남천, 『소년행』, 학예사, 1939
이광수, 『사랑』, 문학사상사, 1994